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화상회의의 진화

정상권 (주)조이펀 대표이사(ceo@joyfun.kr)

1. 화상회의 시스템 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화로 인하여 많은 국가 기관들이 지방 이곳저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관들과 업무 협력을 해야 하는 많은 민간 기업들이 KTX와 고속도로에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 사실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기술이 바로 '화상회의' 시스템이었다.

화상회의는 매우 오래된 기술이다. VoIP 기술과 함께 Web에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전송 기술이 가능해지고, 초고속 인터넷망까지 갖춘 우리나라의 IT 환경을 감안할 때, 이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시스템이었다.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덕담하는 수준의 회의라면 지금의 화상회의 시스템은 훌륭한 회의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을하거나, 논쟁을 해야 하는 회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화상회의 시스템은 '분위기'와 '뉘앙스'를 전달하기에는 적절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즉, 전달되는 '말' 자체보다는 '분위기'와 '뉘앙스'가 디테일이며, 더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되거나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은 2%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2. 증강현실 기술



※ 출처: 영화 킹스맨, 2015

영화 킹스맨에서 보면 주인공 에그시(테런 에저턴)를 도와주는 갤러해드(콜린 퍼스)가 킹스맨 양복점의 비밀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이 있다. 회의 테이블은 비어 있는데, 특수 안경을 착용하니 참석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도 마치 홀로그램처럼 나타내어진다. 물론, 현실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는 것은 앞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다면, 마치 모두가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회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의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부족했던 2%인 '분위기'와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도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현재의 모니터 기반 화상회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3. 맷음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6년에 출시한 '홀로렌즈(Hololens)'라는 제품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시야각(FOV, Field of View)으로 인하여 실제 상용화에서는 시장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매직리프(Magic Leap)는 아마도 증강현실 화상회의가 가능한 제품이 아닐까 예상된다. 매직리프에 관한 평가를 보면 호불호가 많이 나뉘며, 사실 엄청난 기대를 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충격적일 만큼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더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은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가진 제품이라는 평가도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미지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이슈거리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은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화상회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 틀림없다.

현재 TTA의 디지털콘텐츠PG(PG610)와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에서는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에 대한 표준화 기술에 관하여 국내외 표준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